

■ 미나리

미 나리과에 속하는 다년 생 풀로 키는 30~60cm이다.

잎이 어긋맞게 붙었는데 깃꼴겹잎으로 갈라지고 낱낱의 잎은 텔갈 모양에 톱니가 있다.

① 각종 황달병 : 중국 미나리 3백g의 줍을 하루에 3회 식후마다 마시는데, 하루는 생즙, 하루는 끓여서 뜨겁게 하여 마신다.

물미나리도 사용할 수 있지만, 이 경우는 양을 배로 늘여야 한다.

② 월경이 미리 오거나 빛깔이 자주색일 경우 : 중국 미나리 한묶음을 썰어 넣고 2그릇의 물을 부어 삶는다. 물이 1/3로 줄어들면 하루에 3회씩 식전마다 누워서 마신다. 중국 미나리가 없으면 물미나리를 2배로 사용한다.

③ 부인의 하혈과 오색대하증(五色帶下症) : 미나리 삶은 물을 하루에 3회, 식전에 1잔씩 마신다.

④ 소변에 피가 나올 때 : 미나리 줍을 만들어 식간에 1잔씩 3회 복용한다.

⑤ 음주 후에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플 경우 : 미나리와 생홍당무의 줍을 각각 반잔씩 내어 같이 마신다.

⑥ 설사와 구토 : 미나리 삶은 물을 수시로 마신다.

⑦ 고혈압·심장열방·위장병의 악화 : 생미나리의 줍을 1회에 1잔씩 하루에 3~5회를 계속 복용한다.

■ 밀

포아풀과에 속하는 1년생(봄밀), 또는 2년생(가을밀) 풀. 중요한 농산물의 하나로 기원전 3~4천년경부터 재배해 왔으며, 현재 세계의 농작물 중 가장 넓은 재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.

① 파상풍 치료 : 밀과 볶은 소금을 각각 1줌씩 섞어 가루를 낸 다음, 물로 개어서 바른다.

② 계의 식중독 : 밀싹을 조금 삶아서 그 물을 몇 차례 복용한다.

③ 황달병 : 밀싹의 줍을 만들어, 하루에 3회씩 식간에 1잔을 장기적으로 마신다.

④ 밀의 물집 : 밀을 잘 찧어서 물로 간 다음, 두텁게 블여 둔다. 밀가루를 사용해 도괜찮다.

⑤ 여러 종류의 부스럼 : 밀을 태워 검은 가루를 낸 다음, 참기름에 개어서 바른다.

⑥ 임질 : 밀 1되 · 통초(通草) 8g · 물 3되를 넣고 물이 한되가 되도록 끓인다. 이 약 줍을 매일 3~4회 식전에 복용한다.

⑦ 계속되는 식은땀 : 물 위에 뜨는 밀을 100g 정도 볶아서 가루를 만들어 복용한다. 또 다른 처방은 밀 껌질을 노랗게 볶은 다음 밥물에 다 10g씩 먹는다. 유별나게 땀이 많은 사람에게도 좋다.

⑧ 유방의 종기, 젖이 아프고 굳게 뭉쳤을 때 : 밀을 볶아 노란 가루를 내어, 이것을 식초로 죽을 쑤어 두텁게

그 부위에 바른다.

■ 밤

너도 밤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교목으로 키는 5~15m 가량이다. 가시가 난 송이에 쌍여 있으며 겉 껍데기 안에 삼피인 속껍풀이 있다. 맛이 아주 좋으며 경기도 양주 밤과 평안남도 함종 밤이 유명하다.

① 하혈(下血)과 토헐(吐血) : 밤의 겉껍질을 태워 갯가루로 만든 다음에, 밥물로 매일 3회 복용한다. 1회에 8g 정도씩 복용하되, 토헐은 식후, 하혈은 식전에 복용하도록 한다.

② 설사 : 구운 밤 20~35개를 먹든지 껍질을 벗긴 밤 7개와 백변두 한 찻숟갈을 3그릇의 물에 넣고 달이다가 물이 반으로 되었을 때, 몇 차례로 나누어서 복용한다.

이때 설탕을 약간 넣어도 좋다.

③ 신장이 약하고 허리와 다리에 힘이 없을 때 : 10개의 생밤을 장기 복용한다.

④ 도끼나 칼 등의 연장에 의한 회상 : 생밤을 찧어 바르면 좋다.

⑤ 고기의 뼈가 목구멍에 걸려서 내려가지 않을 때 : 밤의 안껍질을 태워 연한 가루를 낸 다음 볼펜대나 대나무 등으로 불어 넣으면 얼마 후 통한다. ■

〈자료 : 백만인의 의서 '가정한방 동의보감' (국일문화사)〉